

수출경쟁력 강화로 선진국과 경쟁하자

보건산업 경쟁력 선진국에 비해 낮아 ... 중국 등 아세안지역서는 경쟁력 갖춰
파트너링 · 연구개발 · M&A 등 전략적 접근 필요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신유원 · 윤소영 연구원

서론

보건산업은 IT산업에 이어 미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건강한 삶과 생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보건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금 세계시장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고, 산업 · 기술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 보건산업의 시장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보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보건산업을 자국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¹⁾은 매년 각국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2년에 발표된 59개국 기준 각국의 국제 경쟁력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2008년 31위에서 2012년에는 9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부 지표 중 '보건 및 환경' 부문에서는 28위를 차지하며 비교국 중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산업의 위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차지하는 국제경쟁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https://www.worldcompetitiveness.com/OnLine/App/Index.htm>





국내외 보건산업 동향

2011년 세계 보건산업의 시장규모는 4조 2,258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5.1%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의약품 9,555억달러, 의료기기 2,956억달러, 화장품 2,428억달러, 식품 2조 7,319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고령사회의 도달,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같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통 보건산업 강국에 맞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아시아, 중남미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증가가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신흥국가들의 보건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표 1.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

(단위: 십억달러, %)

산업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2007~2011)
보건산업	3,462.6	3,693.9	3,841.4	4,077.5	4,225.8	5.1
의약품	663.5	773.1	837.3	942.2	955.5	9.5
의료기기	227.1	251.4	240.9	269.2	295.6	6.8
화장품	209.4	217.7	225.3	233.7	242.8	3.8
식품	2,362.6	2,451.7	2,537.9	2,632.4	2,731.9	3.7

- 자료 1) 의약품 : IMS Health, IMS Health Market Prognosis
 2) 의료기기 : Espicom,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3) 화장품 : Datamonitor, Market Data Analytics Database
 4) 식품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1년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시장규모는 73조 2,000억원(661억달러) 규모로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 대비 1.6% 규모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협소하다. 산업별로는 의약품 19조 1,000억원, 의료기기 4조 3,060억원, 화장품 6조 5,900억원, 식품 43조 2,040억원으로 모든 보건산업이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EU FTA(2010년 7월), 한-미 FTA(2011년 3월)가 발효되면서 우리

■ 표 2. 우리나라 보건산업 시장규모

(단위: 십억원, %)

산업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2007~2011)
보건산업	57,797	64,947	70,162	66,243	73,200	6.1
의약품	15,062	16,958	17,970	19,049	19,100	6.1
의료기기	3,259	3,618	3,644	3,903	4,306	7.2
화장품	4,356	5,105	5,534	6,308	6,590	10.9
식품	35,119	39,267	43,014	36,984	43,204	5.3

- 주 :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
 자료 1) 의약품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약품수출입협회, 수출입실적
 2) 의료기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자료
 3) 화장품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한국약품수출입협회, 수출입실적
 4)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나라 보건산업 분야는 피해산업으로 규명되었으나, 정부가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표명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무역경쟁력 분석

분석방법

무역통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형태의 지표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품목 또는 산업에서의 무역수지, 세계 또는 특정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그 순위 등을 기초로 한다. 이는 한 국가의 경쟁력이 무역을 통해 현시되는 형태가 해당 품목 또는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거나 또는 다른 무역상대국보다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추적하게 되면 경쟁력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경쟁력의 파악을 위해 무역통계를 기초로 산출되는 분석지표로는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MS),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용어

■ 시장점유율(MS: Market Share)

특정 수출시장에서의 각국의 무역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 특정시장의 총수출 중 해당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그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각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품목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RCA_{ik} = \frac{X_{ik}/TX_k}{X_i/TX} = \frac{X_{ik}/X_i}{TX_k/TX}$$

- X_{ik} : i 국의 k 상품의 대세계 수출액
- TX_k : 세계전체의 k 상품 수출액
- X_i : i 국의 총수출액
- TX : 세계전체의 총수출액

■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각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으로, 수출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임. 무역특화지수는 $-1 \leq TSI \leq 1$ 의 값을 가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함

$$TSI_{ik} = \frac{X_{ik} - M_{ik}}{X_{ik} + M_{ik}}$$

- X_{ik} : i 국의 k 상품 수출액
- M_{ik} : i 국의 k 상품 수입액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국제비교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및 UN Comtrade의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산업에 해당하는 HS코드와 매칭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가의 보건산업별 글로벌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장점유율(MS: Market Share)

시장점유율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을 통해 수출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약품의 경우 분석대상 국가 중 일본에 12.0%를 수출하며 가장 높은 수출의존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5.3%, 태국 2.1%, 미국 2.0% 등 9개국의 수출 비중이 약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수출국은 독일이 14.7%로 가장 높고, 미국 12.7%, 중국 7.4%, 일본 7.2% 등 9개국의 수출 비중이 의료기기 총수출에 4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의 수출국은 중국이 25.1%로 매우 높았고, 일본 15.7%, 미국 8.0% 등 9개국의 수출 비중이 화장품 총수출에 61.9%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출국 1위는 일본으로 27.1%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태국 13.7%, 미국 8.4%, 중국 6.9% 등의 순으로 건강기능식품 총수출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이 2007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본 역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미국으로의 수출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 여파로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지출이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산업 역시 대미국 수출에 타격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 표 3.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국 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중국	4.2	5.3	5.2	7.4	31.3	25.1	7.1	6.9
일본	9.0	12.0	7.1	7.2	9.7	15.7	35.6	27.1
미국	13.9	2.0	18.0	12.7	10.8	8.0	23.6	8.4
영국	0.2	0.2	1.1	1.2	1.1	0.7	0.2	0.1
독일	3.9	1.5	11.2	14.7	0.4	0.3	0.5	1.5
프랑스	0.2	0.2	1.8	0.9	0.3	0.6	2.1	0.8
인도	0.8	1.2	2.5	2.5	0.3	0.3	0.6	0.7
태국	1.8	2.1	1.5	1.6	1.2	7.5	1.5	13.7
말레이시아	0.6	0.8	1.2	1.5	2.4	3.8	0.7	5.5
9개국 합계	34.5	25.3	49.6	49.6	57.6	61.9	71.8	64.6

주 : 수출비중=우리나라 각국의 보건산업별 수출액/우리나라 전세계 보건산업별 수출액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장점유율은 특정 수출시장에서 각국의 무역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이다. 2011년 세계 전체 수출 중 보건산업의 수출 비중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약 5.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2.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의료

기기 1.81%, 화장품 0.43%, 건강기능식품 0.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보면 보건산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며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점유율이 각각 0.31%p, 0.1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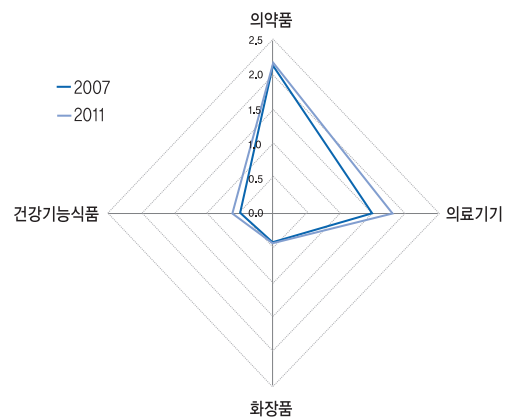
또한 세계 보건산업 총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 비중은 2011년 0.93%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시장점유율이 1.77%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품 1.16%, 건강기능식품 0.82%, 의약품 0.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과 비교하여 보건산업별 시장점유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 그림 1. 보건산업별 수출 시장점유율(MS) 변화 추이

세계 (단위: %)

산업구분	2007년	2011년
보건산업	4.54	5.02
의약품	2.14	2.17
의료기기	1.50	1.81
화장품	0.41	0.43
건강기능식품	0.48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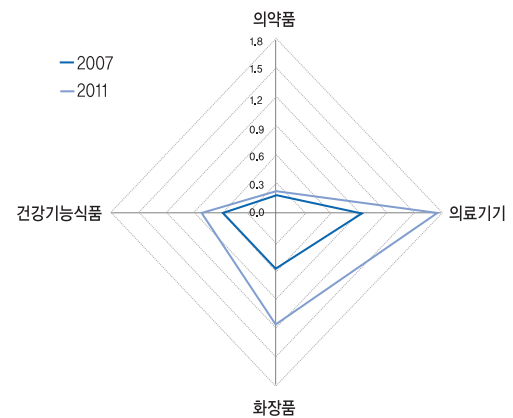
주: 세계 전체 수출 중 보건산업별 수출 비중



우리나라 (단위: %)

산업구분	2007년	2011년
보건산업	0.51	0.93
의약품	0.18	0.22
의료기기	0.94	1.77
화장품	0.58	1.16
건강기능식품	0.56	0.82

주: 세계 보건산업별 수출 중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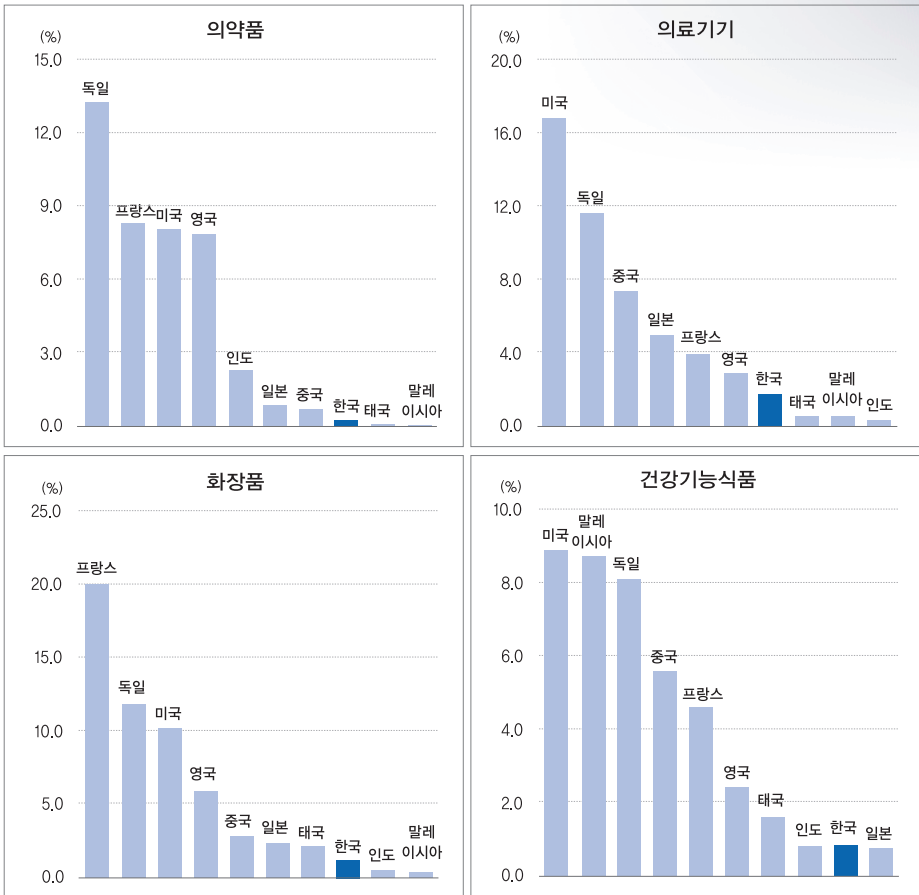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비교국(10개국) 중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로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일곱 번째 순위를 나타낸다. 화장품의 경우 프랑스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순서로 나타나며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개 비교국중 하위권의 순위를 기록, 시장 점유율이 낮아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쟁 입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 보건산업별 각국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MS)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표 4.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수출 비중 상위품목

산업	품목명	비중(%)	
		2007년	2011년
의약품	백신	23.37	30.05
	기타항생물질*	5.95	12.93
	호르몬제*	5.80	4.65
의료기기	초음파검사기	14.28	6.37
	물리화학분석장비	1.86	4.84
	전기진단장치	6.93	3.31
화장품	미용제품	70.27	74.97
	헤어제품	6.38	4.80
	향수	2.86	4.28
건강기능식품	인삼뿌리	14.15	16.06
	채소얼갈이	7.83	3.43
	등황	4.41	3.10

주 1) 비중은 우리나라 각 산업별 총 수출액 대비 우리나라 해당품목 수출액

2) *는 소매용임

3) 호르몬제는 피임약을 제외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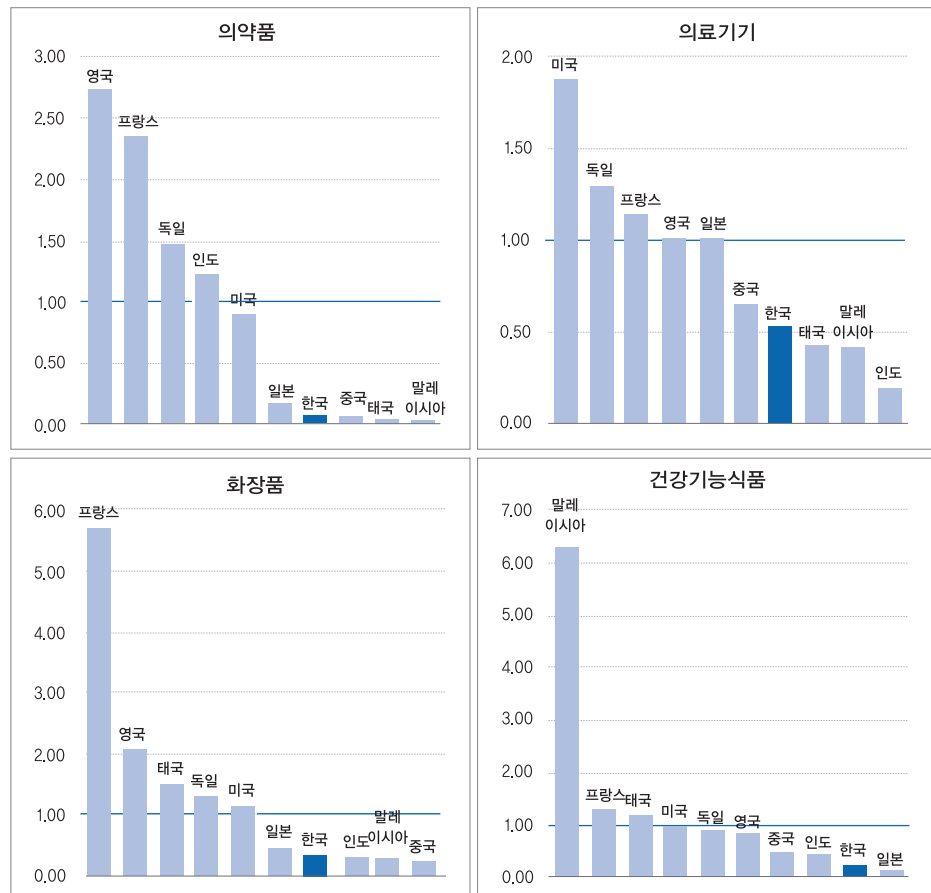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품목은 의약품의 경우 백신이 30.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항생물질(12.93%), 호르몬제(4.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초음파검사기 6.37%, 물리화학분석장치 4.84%, 전기진단장치 3.31% 등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화장품은 미용제품이 74.97%로 헤어제품 4.80%, 향수 4.28%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삼뿌리의 수출이 16.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채소얼갈이(3.43%), 등황(3.10%) 등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이하, RCA지수)는 시장점유율(MS)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의 비교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지표이다. 특정품목의 RCA지수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림 3]은 2011년 각국의 보건산업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보여준다. 의약품은 글로벌 제약 강국인 영국, 프랑스 및 독일과 Ranbaxy, Dr. Reddy's 등 글로벌 제네릭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인

■ 그림 3. 2011년 보건산업별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도에서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기기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장품은 프랑스, 영국, 태국, 독일 및 미국에서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샤넬, 지방시, 이브생로랑, 부르조아, 겔랑, 록시땅 등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많은 프랑스의 화장품 RCA지수는 5.68로 상당히 높았다. 건강기능식품은 말레이시아, 프랑스, 태국에서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타국가 대비 건강기능식품의 RCA지수가 매우 높은데 이는, 어류의 유지 및 잇꽃유 등 타 지역에는 없는 현지특화품목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각국의 보건산업별 RCA지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며 보건산업이 각 해당국가의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수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건산업별 RCA지수는 모두 현시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대비 현시비교열위의 정도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건산업 중에는 의료기기의 수출경쟁력이 타 보건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및 일본 역시 의료기기의 수출경쟁력이 타 보건산업에 비해 높았으며, 일본은 의료기기에서는 RCA지수 값이 1을 상회하여 현시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산업부문보다 특별히 현시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은 비록 현시비교열위에 있으나 의료기기의 RCA지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의 현시비교우위가 증가하여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의료기기, 화장품에서 현시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2007년 RCA지수가 1.16으로 현시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11년 0.99로 현시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한편, RCA지수는 한 국가가 특정 재화의 수출 및 수입을 모두 많이 할 경우 RCA지수만으로는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시비교우위의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내 무역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모든 보건산업부문에서 현시비교우위에 있으나, 화장품에서 상당히 높은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며 수출주력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과 독일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서 현시비교우위에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국이 RCA지수 0.84, 독일이 0.90으로 현시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영국은 2007년 RCA지수가 1.24에서 2011년 0.84로 그 값이 크게 하락하여 건강기능식품이 현시비교우위에서 현시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인도는 의약품, 태국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말레이시아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보건산업별 RCA지수 변화 추이를 나타내며, 동기간 동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RCA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료기기는 2007년 RCA지수가 0.34에서 0.52로 5년 동안 크게 성장, 타 보건산업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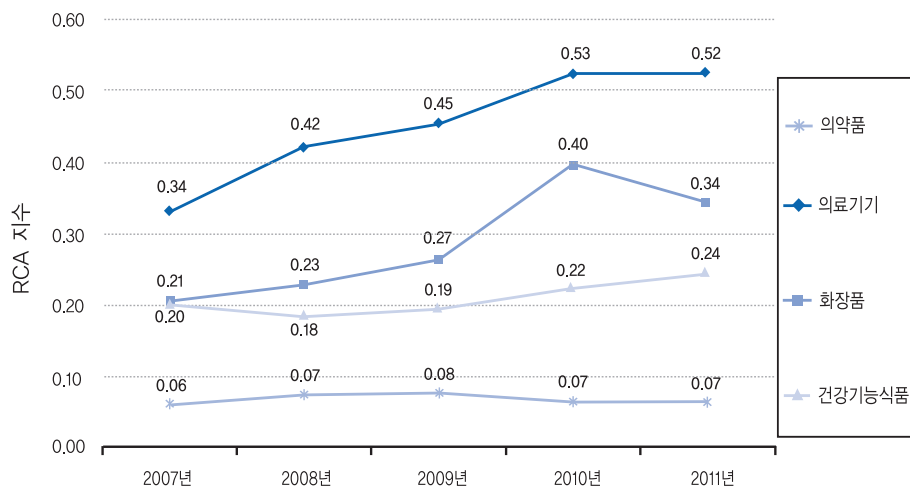
■ 표 5. 각국의 보건산업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국 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한국	0.06	0.07	0.34	0.52	0.21	0.34	0.20	0.24
중국	0.03	0.06	0.52	0.64	0.26	0.25	0.42	0.49
일본	0.13	0.16	1.17	1.01	0.31	0.47	0.16	0.15
미국	0.79	0.90	2.13	1.87	1.18	1.13	1.16	0.99
영국	2.78	2.74	1.32	1.01	2.21	2.09	1.24	0.84
독일	1.45	1.47	1.39	1.29	1.24	1.32	0.87	0.90
프랑스	2.21	2.35	1.13	1.14	5.76	5.68	1.28	1.30
인도	1.19	1.23	0.26	0.19	0.30	0.31	0.55	0.46
태국	0.04	0.04	0.47	0.42	1.19	1.51	1.12	1.20
말레이시아	0.03	0.03	0.32	0.41	1.23	0.28	4.46	6.32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화장품의 RCA지수는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급상승한 반면, 2011년도는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RCA지수가 감소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200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약품은 2007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5년 동안 추세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 정부·민간의 연구개발 집중투자 등 산업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RCA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그림 4.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변화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 6〉은 우리나라 보건산업 품목별 RCA지수 변화를 파악하여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산업 품목을 2011년 RCA지수 기준으로 수출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



목($RCA \geq 1$)과 현시비교열위에 있는 품목($RCA < 1$)으로 구분한 후, 2007년 RCA지수와 비교하여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품목과 약화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 그룹은 현시비교우위에 있으면서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품목군으로 각 보건산업의 수출주력상품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에서는 항생제, 의료기기의 치과 X-ray 장치 및 치과재료, 건강기능식품의 인삼뿌리가 수출주력상품으로 분석되었다. 항생제는 2007년 현시비교열위품목이었으나 2011년 현시비교우위품목으로 전환되었다. 인삼뿌리는 2011년 기준 RCA지수가 10.48로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 품목 중 가장 높은 비교우위에 있으며, 2007년 대비 RCA지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II 그룹은 현시비교우위에 있으나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품목군으로 경쟁력 강화방안 및 수출전략 재조정이 필요한 품목이다. 의료기기의 초음파검사기와 콘돔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 초음파검사기는 2011년 기준 RCA지수가 2.34로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는 반면, 콘돔은 1.00으로 간신히 RCA지수가 1에 걸쳐있어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수출비교열위 품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I 그룹은 현시비교열위 품목이지만 RCA지수가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품목군으로 수입 대체의 진전과 현시비교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군이다. 의약품의 페니실린 및 스트렙토마이신, 소매용 항생물질, 의료기기의 전기심박동기록기, 물리화학분석장비, 콘택트렌즈 등이 III 그룹에 속하며, 화장품은 대부분의 품목이 III 그룹에 해당한다. 의료기기에서 전기심박동기록기는 2011년 기준 RCA지수가 0.84로 현시비교열위이나, 2008년 1.09, 2010년 1.04로 현시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으로, 향후 수출전략 조정과 경쟁력제고를 통해 다시 비교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의료기기의 물리·화학분석장치 및 콘택트렌즈, 자외선 및 적외선 레이저 장치나 화장품의 미용제품 및 향수 등은 2007년 대비 RCA지수가 급등한 품목으로 현재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수출주력품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다.

IV 그룹은 현시비교열위이면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된 품목군으로 비교열위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 추진 및 전략적 수입의 확대를 요하는 품목군이다. 의약품의 백신, 의료기기의 전기진단장치, 안과기기, 마사지장치, 봉합재료, 주사기, 화장품의 스키파우더 및 헤어기기, 건강기능식품의 등황, 생선간유가 IV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진단장치, 안과기기, 등황 등 IV 그룹에 해당하지만 비교적 RCA지수가 높은 품목군에 대해서는 경쟁력제고를 통해 III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7〉은 2011년 기준 국가별 보건산업 RCA지수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것으로 국가별 보건산업 중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에서 인슐린(9.52), 의료기기에서 보청기(5.97), 화장품에서 매니큐어제품(2.60), 건강기능식품에서 단백질제품(4.17)이 각 보건산업별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고, 인슐린이 미국 보건산업 전체에서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 표 6.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구분	경쟁력	세분류	산업부문	품목명	RCA지수	
					2007년	2011년
수출우위 (RCA≥1)	강화	I 그룹	의약품	항생제	0.79	1.21
			의료기기	치과X-ray장치	2.50	2.96
				치과재료	1.16	1.49
	건강기능식품	인삼뿌리	6.74	10.48		
	약화	II 그룹	의료기기	초음파검사기	2.77	2.34
				콘돔	1.39	1.00
수출열위 (RCA<1)	강화	III 그룹	의약품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0.13	0.27
				소매용 기타 항생물질	0.10	0.18
			의료기기	전기심박동기록기	0.71	0.84
				물리화학분석장비	0.17	0.74
				콘택트렌즈	0.28	0.65
				자외선및적외선레이장치	0.15	0.59
				수술소독기	0.29	0.53
				방사선장치	0.33	0.48
				마이크로툼	0.32	0.42
				의료X선장치	0.20	0.39
				치과제품	0.20	0.26
				의료드레싱	0.18	0.24
			구강위생제	0.06	0.16	
			화장품	미용제품	0.47	0.78
				향수	0.15	0.44
				매니큐어제품	0.15	0.32
				목욕용 제품	0.18	0.24
				립메이크업제품	0.09	0.17
	헤어샴푸	0.08		0.15		
	건강기능식품	비활성효모	0.29	0.35		
		차	0.07	0.20		
		과일 및 식용식물	0.09	0.16		
		동식물 혼합기름	0.06	0.12		
	약화	IV 그룹	의약품	백신	0.45	0.34
				기타의약품	0.36	0.15
			의료기기	전기진단장치	0.61	0.54
				안과기기	0.57	0.44
				마사지장치	0.72	0.37
				봉합재료	0.32	0.21
				주사기	0.29	0.20
화장품			스킨파우더	0.45	0.29	
			헤어 기기	0.21	0.08	
건강기능식품			등황	0.90	0.82	
			생선간유	0.73	0.36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표 7. 2011년 각국의 보건산업별 수출우위품목(상위5개)

국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미국	인슐린(9.52) 아편(2.98) 백신(1.72) 호르몬제(1.46) 소매용 비타민(1.39)	보청기(5.97) 혈액형판정시약(3.46) 정형용품(3.38) 인공관절(3.26) 정형용기기(2.95)	매니큐어제품(2.60) 향수(2.12) 헤어기기(1.86) 스킨파우더(1.71) 립메이크업(1.36)	단백질(4.17) 차(2.23) 단백질분말(2.23) 비정제식물기름(2.12) 과일 및 식용식물(1.42)
영국	알카로이드(27.88) 호르몬제(15.94) 부신피질호르몬*(6.65) 페니실린 등*(6.41) 페니실린 등(5.91)	전기진단장치(5.96) 적외선 레이장치(5.32) 인공관절 등(4.64) 혈액형판정시약(4.27) 안과용기기(3.43)	면도용제품(6.51) 체취방지용제품(4.78) 피부세정제품(3.12) 헤어기기(2.94) 립메이크업(2.74)	뼈와 뼈(5.27) 정제식물기름(3.74) 차(3.17) 식용동물(2.75) 인삼뿌리(2.48)
독일	인슐린*(5.93) 기타의약품*(1.57) 소매용 비타민(1.43) 호르몬(1.31) 인슐린(1.10)	구강위생제(4.29) 정형용품(3.85) 안과용기기(3.70) 인공관절(3.36) 콘택트렌즈(3.35)	두발염색용제품(3.72) 피부세정제품(2.33) 면도용제품(1.93) 체취방지용제품(1.78) 헤어제품(1.67)	차(2.12) 생선기름(간제외)(1.67) 팜오일(1.18) 식용동물(1.18) 활성효모(1.15)
프랑스	인슐린*(8.04), 백신(3.70) 부신피질호르몬*(3.02) 기타의약품*(2.25) 호르몬제*(1.99)	보청기(4.69) 호흡장치(3.86) 원심분리기(3.42) X-ray진단시약(3.41) 유리구경렌즈(3.00)	향수(8.49) 미용제품(7.00) 립메이크업제품(5.16) 아이메이크업제품(4.51) 헤어샴푸(4.32)	뼈와 뼈(2.69) 등황(2.62) 식용동물(2.38) 과일, 식용식물(2.38) 생선기름(간제외)(2.33)
중국	항생제(1.92)	온도계(3.59) 수술소독기(2.97) 봉합재료(2.94) 보청기(1.73) 마이크로튠(1.56)	목욕용제품(1.50)	해바라기유(4.11) 비정제식물기름(2.87) 과일, 식용식물(2.34) 코코아(1.94) 단백질분말(1.89)
일본	페니실린 등(3.67) 항생제(1.52)	초음파검사기(3.70) 휠체어(3.53) 의료드레싱(2.84) 심박동기록기(2.83) 치과용제품(2.63)	-	-
인도	기나피제제(22.13) 페니실린 등(10.17) 아편(9.10) 페니실린 등*(5.77) 호르몬제(3.98)	자기공명진단기(2.19) 구강위생제(1.74)	-	비정제식물기름(4.56) 생선간유(4.09) 코코아(음식용)(1.88) 동식물색소(1.56) 해바라기유(1.56)
태국	-	정형용기기(4.13) 수술소독기(1.88) 자기공명진단기(1.62) 치과용제품(1.47) 마이크로튠(1.02)	헤어샴푸(8.06) 헤어제품(4.44) 스킨파우더(2.26) 피부세정제품(1.99) 헤어기기(1.89)	코코아(초콜릿등)(5.38) 동식물색소(3.96) 활성효모(2.35) 단백질(1.75) 비활성효모(1.69)
말레이 시아	-	방사선장치(4.79) 전기진단장치(1.58) 인공관절등(1.51) 마사지 등 장치(1.14)	목욕용제품(3.22)	비활성효모(19.68) 생선간유(11.62) 단백질(3.45) 등황(1.26) 활성효모(1.12)

주 1) *는 소매용임

2) 호르몬제는 피임약을 제외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국은 의약품에서 알카로이드(27.88), 의료기기에서 전기진단장치(5.96), 화장품에서 면도용제 품(6.51)이 각 보건산업별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고, 특히 알카로이드는 영국의 주력품목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소매용 인슐린(5.93), 구강위생제(4.29), 두발염색용 제품(3.72), 차(2.12)가 각 보건산업별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고, 소매용 인슐린이 독일의 주력품목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소매용 인슐린(8.04), 보청기(4.69), 향수(8.49), 뼈와 뿔(2.69)이 각 보건산업별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며, 향수가 프랑스 보건산업의 최고 주력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보건산업별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항생제(1.92), 온도계(3.59), 목욕용제품(1.50), 해바라기유(4.11)로, 건강기능식품인 해바라기유가 보건상품 중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에서 페니실린(3.67), 의료기기에서 초음파검사기(3.70)로, 의료기기인 초음파검사기가 보건상품의 주력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인도는 향정원료인 기나피제제가 RCA지수 22.13으로 인도 의약품 및 보건산업에서 가장 현시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태국은 화장품인 헤어샴푸의 RCA지수가 8.06, 말레이시아는 건강기능식품의 비활성효모가 RCA지수 19.68로 보건산업 중 가장 현시비교우위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무역특화지수가 자주 사용된다. 무역특화지수(TSI)는 수출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품목의 순수출을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는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순수출이 교역규모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교역규모로 나누어 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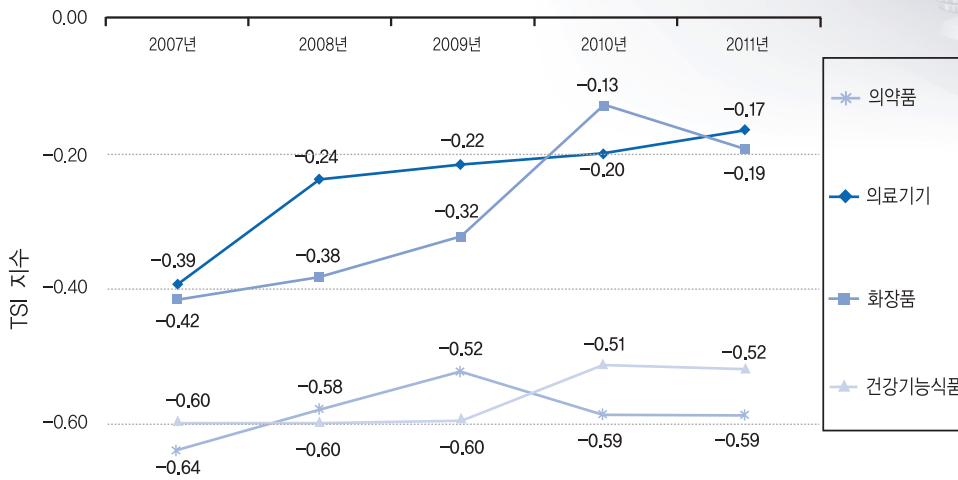
경쟁력의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무역특화지수는 다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사이에 무역특화지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건산업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아래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수입특화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의약품의 수입특화 정도가 가장 심화 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순으로 수입특화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

보건산업은 현재까지는 모두 수입특화 되어 있지만,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약 -0.2로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될 수 있는 산업으로 기대된다. 화장품의 경우는 2007년 이후로 무역특화지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10년에 -0.13으로 보건산업 중 가장 높았으나 2011년 의료기기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특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완제의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수입특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9년까지 수입특화의 경도가 줄어들다가 2010년부터 다시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對세계 무역특화지수(TSI) 변화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주요 국가별 무역특화지수를 다음 <표 8>에서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보건산업 강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출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해서 의약품의 무역특화지수는 2007년 대비 2011년 수입특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역시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로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며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서도 보건산업별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약 강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약품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특화 양상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품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의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화장품 역시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 2011년 화장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0.77로 수출특화 되어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은 2007년 수입특화에서 2011년 수출특화로 경쟁력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나타나는 국가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특화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 대상 교역에서 의료기기 및 화장품이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태국 대상 교역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보건산업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대상 교역에서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서 수출특화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과거 2007년 수입특화에서 2011년 수출특화로 전환되며 경쟁력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최근 K-Pop, 한국드라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한류열풍으로 인한 국내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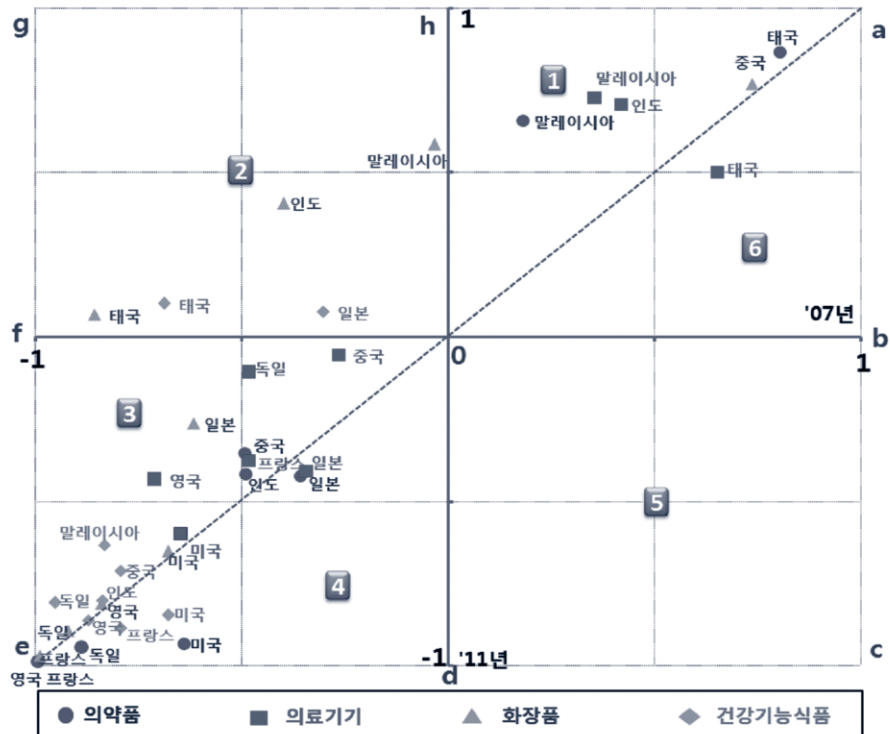
■ 표 8.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주요 국가별 무역특화지수(TS) 변화

대상국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세계	-0.64	-0.59	-0.39	-0.17	-0.42	-0.19	-0.60	-0.52
중국	-0.49	-0.35	-0.27	-0.05	0.74	0.77	-0.79	-0.71
일본	-0.36	-0.42	-0.34	-0.41	-0.62	-0.26	-0.30	0.08
미국	-0.64	-0.93	-0.65	-0.60	-0.68	-0.65	-0.68	-0.85
영국	-0.99	-0.99	-0.71	-0.43	-0.84	-0.81	-0.87	-0.86
독일	-0.89	-0.94	-0.48	-0.11	-0.92	-0.89	-0.95	-0.81
프랑스	-0.99	-0.99	-0.48	-0.38	-0.99	-0.97	-0.79	-0.88
인도	-0.49	-0.42	0.42	0.71	-0.40	0.41	-0.84	-0.00
태국	0.80	0.87	0.65	0.50	-0.86	0.07	-0.69	0.10
말레이시아	0.18	0.66	0.36	0.73	-0.03	0.59	-0.83	-0.63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해 2007년과 2011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건산업의 국가별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이용하여 경쟁력 변화를 크게 여섯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 그림 6. 우리나라 각 무역대상국별 보건산업 무역특화지수(TS) 변화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x축은 2007년의 무역특화지수(TSI) 값으로 범위는 -1에서 1까지이고, y축은 2011년의 무역특화지수로 범위는 x축과 동일하다. 45°의 기울기를 가지는 우상향 직선을 중심으로 ①부터 ⑥까지의 여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우상향하는 직선위에 위치한 값은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무역특화지수의 변화가 없는 값으로 경쟁력의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① 그룹에서 ③ 그룹까지는 보건산업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 대상 국가이고, ④ 그룹에서 ⑥ 그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서 각 그룹별 무역특화지수 추이를 통해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그룹은 [그림 6]의 $\Delta a0h$ 영역으로 2007년에도 수출특화였으나 2007년 대비 2011년 무역특화지수(TSI)가 상향되어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국가를 나타낸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 주력 국가를 나타내며 해당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산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의료기기는 인도 및 말레이시아, 화장품은 중국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주력 국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그룹은 [그림 6]의 $\square h0fg$ 영역으로 2007년 기준 수입특화에서 2011년 수출특화로 전환된 교역 대상국에 해당된다. 이 영역에 속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전략국으로서 수출주력국으로의 전환(② 그룹→① 그룹)을 위해 수출전략을 재정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보건산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은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건강기능식품은 일본, 태국이 이에 속한다. 화장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및 인도의 무역특화지수가 2011년 기준,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특화지수 값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전략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그룹은 [그림 6]의 $\Delta f0e$ 영역으로 2011년 현재는 우리나라가 수입특화 되어있지만 수입특화의 정도가 약화되어 향후 수출특화로 전환(③ 그룹→② 그룹)될 가능성이 있는 교역 대상국에 해당한다. 의약품은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의료기기는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화장품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중국, 영국, 독일, 인도 및 말레이시아가 이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 국가 대부분이 ③ 그룹에 속해 있으나 의료기기는 중국, 독일 및 화장품은 일본에 대하여 수입특화 정도가 매우 약화, 향후 수출특화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그룹은 [그림 6]의 $\Delta d0e$ 영역으로 ③ 그룹과 달리 수입특화의 정도가 2007년 대비 심화되고 있어 보건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영역에 속한 국가에 대해서는 보건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및 전략적 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일본, 미국, 독일, 의료기기는 일본,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및 프랑스가 이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④ 그룹에 속해있는 국가들은 현재 보건산업의 강국으로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그룹은 [그림 6]의 $\square b0dc$ 영역에 해당하며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무역구조가 전환된 국

가군이다. 이 그룹은 경쟁력 상실로 해석되며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⑤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⑥ 그룹은 [그림 6]의 $\Delta a0b$ 영역으로 수출특화는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이 2007년 대비 약화된 국가로, 이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건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이 요구된다. 의료기기의 태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해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수출특화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로 아시아 지역인 반면, 미국, 일본 및 프랑스 등 주요 보건산업 강국에 대해서는 수입특화 양상이 더욱 심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전략의 재조정을 통해 ② 그룹에서 ① 그룹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수출주력 국가로 이동시켜야하고, 2011년 기준 수입특화이지만 그 정도가 약화된 ③ 그룹의 경우 해당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여 수출특화로 이동시켜야 한다. 경쟁력이 약화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건산업별 구조조정 및 수입대체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표 9. 우리나라 보건산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구분	그룹	경제적 의미	산업	대상국
경쟁력 강화	① ($\Delta a0h$)	수출특화로 경쟁력 강화	의약품	태국,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인도, 말레이시아
			화장품	중국
	② ($\square h0fg$)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화장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건강기능식품	일본, 태국
	③ ($\Delta f0e$)	수입특화로 수입특화정도 약화	의약품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의료기기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화장품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건강기능식품	중국, 영국,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경쟁력 약화	④ ($\Delta d0e$)	수입특화로 수입특화정도 강화	의약품	일본, 미국, 독일
			의료기기	일본
			건강기능식품	미국, 프랑스
	⑤ ($\square b0dc$)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	
	⑥ ($\Delta a0b$)	수출특화로 경쟁력 약화	의료기기	태국

주1) 한국개발연구원의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2003)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건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재분류함
 주2) 전세계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3그룹에 해당함
 자료: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지막으로 무역특화지수 동태를 보건산업의 품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경쟁력 강화에 해당하는 ① 그룹의 산업별 품목은 의약품의 경우 페니실린, 항결핵제, 비타민C



■ 표 10. 우리나라 보건산업품목별 경쟁력 변화

구분	경제적 의미	산업	품목	
경쟁력 강화	① 그룹 수출특화로 경쟁력 강화	의약품	페니실린, 항결핵제, 비타민C제제, 인삼제제, 카나마이신제제 ^a	
		의료기기	콘돔,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주사침, 봉합침, 산부인과용기기, 정형외과용기기	
		건강기능식품	타블렛 ^a , 알로에 조제품, 분 ^a , 인삼차 ^a , 홍삼엑스 ^a	
	② 그룹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의약품	기나피제, 페니실린, 클로람페니콜제제, 비타민E제제	
		의료기기	살균기, 콘택트렌즈, 자·적외선 응용기기, 치과용 유닛, 골밀도측정기, 치과용의자	
		화장품	네일에나멜, 메이크업용제품류	
	③ 그룹 수입특화로 수입특화정도 약화	의약품	백신, 항암제, 아스피린제제, 인슐린, 뇌하수체 호르몬제제, 난포 호르몬제제, 비타민A제제, 비타민 B1제제	
		의료기기	조제드레싱, 지혈제, 치과용시멘트, 치과용충전재, 구강위생용품, 치과용인상재료, 검진용사진기, 자기공명촬영기기, 뇌파계, 청력검사용기구, 치석제거기, 안과용기기, 산소흡입기, 인공호흡기, 인조관절, 보청기, 선행가속치료 장치, 엑스선의 스크린, 크로마토그래프, 물리화학분석용기기, 수술대	
		화장품	향수, 목욕용염, 인체탈취제, 립스틱, 기초화장용 제품류, 샴푸, 헤어린스	
		건강기능식품	상어간유, 양조효모, 불활성효모, 누룩,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향미용조제품, 미생물배양체	
	경쟁력 약화	④ 그룹 수입특화로 수입특화정도 강화	의약품	뇌하수체전엽호르몬제제, 뇌하수체후엽호르몬제제, 부신피질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항히스타민제제, 녹용제제, 스트렙토마이신, 항암제, 니코틴제제, 아트로핀제제, 비타민D제제, 비타민K제제, 아스피린제제, 항히스타민제제
			의료기기	살균한 봉합제, 살균한 봉합용 접착제, 혈액형분류용 시약, 진단용시약, 뼈형성용 시멘트, 시력교정용의 것, 혈압측정기기, 카테터, 내시경,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의치, 심장박동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감마사진기, 의료용온도계, 안과용의자, 혈관조영 촬영장치
화장품			향낭, 애프터쉐이빙로션, 화장수, 페이스파우더, 아이셰도우, 헤어래커, 퍼머먼트제품류, 피부세척용제품, 헤어크림	
건강기능식품			로열젤리, 골분, 알로에수액, 어류의 유지(간유제외), 조유, 잇꽃유, 벌꿀조제품, 자기소화효모, 동식물성 착색제	
⑤ 그룹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의약품	비타민제제	
		의료기기	혈액저장용 냉장고, 주사기,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마사지용기기	
		건강기능식품	인삼엑스분	
⑥ 그룹 수출특화로 경쟁력 약화		의약품	에페드린제제	
		의료기기	주사기, 산부인과용 검진대, 분만대	
		건강기능식품	인삼엑스, 홍삼차	

주 : e는 완전수출특화(TSI=1) i는 완전수입특화(TSI=-1)를 나타냄(2011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제, 인삼제제 등이 있으며, 의료기기는 콘돔,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정형외과용기기 등, 건강기능식품은 타블렛, 알로에 조제품, 분 등의 품목이 수출특화 되어 있어 경쟁력이 높아 수출주력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의약품의 카나마이신제제 및 건강기능식품의 타블렛, 분, 인삼차, 홍삼엑스 품목은 무역특화지수(TSI)가 1로 완전수출특화 품목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약화에 해당하는 4 그룹의 산업별 품목은 의약품의 경우 뇌하수체 전·후엽 호르몬제제, 부신피질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항히스타민제제, 녹용제제, 스트렙토마이신, 항암제, 니코틴제제, 아트로핀제제, 비타민D제제 등이 있으며, 의료기기는 살균한 봉합재, 진단용시약, 내시경, 인공신장기,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화장품은 향낭, 애프터쉐이빙로션, 페이스파우더 등, 건강기능식품은 로열제리, 꿀분, 알로에수액 등의 품목이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뇌하수체후엽호르몬제제, 녹용제제, 니코틴제제, 아스피린제제 등, 의료기기 혈액형분류용시약, 인공신장기용투석기, 감마사진기, 혈관조영 촬영장치, 화장품의 향낭, 건강기능식품의 로열제리, 꿀분, 조유, 잇꽃유 품목은 무역특화지수(TSI)가 -1로 완전수입특화 품목으로 국제 경쟁력이 매우 낮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언

보건산업은 세계적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추구 등, 시장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선진국에 맞서 주요 신흥국들 역시 자국의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미미하고, 글로벌 경쟁력 역시 보건산업 선진강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일부 품목은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TSI) 및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석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특화의 정도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자칫 수입특화심화로 선회,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유기적 공조를 통해 보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출특화된 국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나가야하며, 수출특화품목이지만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국내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한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과 파트너



링, 인수합병,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신약 및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산업에서 중국 및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 바, 향후 체결될 한·중 및 한·중·일 FTA 등 양자 또는 다자간 이루어질 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더 큰 이윤창출, 국민 후생 증대 및 국부 증진을 위해 국내 보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협상을 이끌어 우리나라 보건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모델 구축, 201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2003

보건산업통계시스템 <http://www.khiss.go.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IMD(국제경영개발원) <http://www.imd.org/>

UN Comtrade(UN 무역통계) <http://comtrade.un.org/>